

‘전기차 배터리 왕관’ 뺏긴 LG엔솔, 상장 날개 달고 탈환?

LG엔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9~10월 상장, 올 코스피 입성 전망
상장시 기업가치 100조 육박 추정
중 CATL에 반격 등 긍정 시그널

LG에너지솔루션이 본격적인 기업 공개(IPO) 절차에 돌입하면서 최근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에 내줬던 1위 자리를 탈환하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거래소의 승인 이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 및 공모가 확정 ▲일반 청약 등의 절차를 거쳐게 된다.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9~10월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소 심사와 공모주 청약 등을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

거쳐 올해 3~4분기 코스피 시장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모회사 LG화학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12월 LG화학으로부터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 같은 지분 구조가 형성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전기차 등 시장 수요 확대에 따른 시설 투자 자금 확충 등에 활용해 사업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고, 주주

가치 제고 및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경우 기업가치는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부문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에 밀리고 있는 가운데, 다시 이러한 상장을 바탕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코스피 상장 종목 중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는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다만 실제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 업체들은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 CATL은 지난해 말부터 LG에너지솔루션에 1위 자리를 빼앗은 이후 여전히 내주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세계 각국 차량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CATL이 6.2GWh로 점유율 35.2%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355.5%의 큰 폭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4.2GWh로 점유율 23.9%를 기록해 2위를 점했다. 또한, CATL은 최근 시가총액이 1조 위안(약 174조 원)을 처음 돌파하기도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K-배터리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미국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에 CATL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애플은 이 같은 조건으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을 것을 요구했고, 아직 양사 간 결정된 바는 없다는 전언이다. CATL이 애플카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될 경우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모빌리티 혁신’ 이끈 정의선, 글로벌서 인정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英 오토카서 ‘최고 영예의 상’ 수상
“10년간 가장 놀라운 성과 낸 인물”
정 회장 “인류 진보에 이바지할 것”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괄목한 성과를 낸 인물로 평가받았다.

정의선 회장은 8일(현지시각)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가 주관하는 ‘2021 오토카 어워즈’에서 ‘이시고니스 트로피’를 수상했다. 이시고니스 트로피는 오토카 어워즈에서 시상하는 최고의 상이다.

오토카는 지난 1895년 세계 최초로 발간된 자동차 전문지로 영미권 독자 외에도 온라인판, 국제판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한 매체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인물과 제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정 회장이 수상한 이시고니스 트로피는 오토카 어워즈 중 최고 영예의 상으로 전설적 자동차 디자이너 겸 엔지니어인 ‘알렉 이시고니스’의 이름을 차용해 명명됐다. 론 데니스 맥라렌 회장(2014년), 도요타의 도요다 아키오 사장(2018년), 디터 제체 다임러 회장



정의선 회장이 양재동 본사 사옥에서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 전시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년), 하칸 사무엘슨 볼보 CEO(2020년) 등 세계 자동차 업계를 이끈 인물들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토카 측은 정 회장의 수상 이유에 대해 “지난 10년 현대차그룹은 현재 세계 굴지의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했으며, 정 회장이 이러한 변혁의 원동력이었다”며 “10년전만 해도 현대차·기아는 흥미로운 브랜드가 아니었지만 정 회장 리더십으로 주요 선두 업체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N 브랜드와 제네시스 브랜드 등을 앞세워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는 업계 선

두주자로 발돋움했다”면서 “더 이상 경쟁사들을 따라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현대차그룹을 추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이시고니스 트로피를 수상한 수상이 현대차그룹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감사를 전했다. 그는 “이 영예는 지속가능하고 고객 중심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 인류에 공헌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고객은 현대차그룹의 유일한 존재 이유로, 고객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인류 진보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

의 이동과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삶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즐기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때까지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회장은 뛰어난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견인하는 글로벌 리더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왔다.

기아 사장 당시 성공적으로 ‘디자인 경영’을 추진했고, 현대차 부회장 재임 기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에 맞서 성장을 이끌었으며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를 출범, 안착시켰다.

정 회장은 또 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재편에 선제적인 과감한 투자와 제휴, 적극적 인재 영입 등을 통해 현대차 동차그룹을 ‘자동차 제조 기업’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특히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실현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2006년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하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에 이름을 올렸으며, 2009년에는 수출 증대 공로를 인정받아 탄산음료업계를 수상했다. 올해는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주관하는 ‘2021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

/양성운 기자 ysw@

>> 1면 ‘G2 반도체 굴기’서 계속

경쟁사 턱밑 추격 한창 내부선 노사갈등 ‘내홍’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뒤쳐지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이크로이 극외선(EUV) 장비를 이용하지 않아 수율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첨단 세무 기술도 적용하기 어려워 성능과 안정성 등을 보면 삼성전자가 1aD램이 훨씬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추측했다.

낸드 분야에서는 더블 스택을 처음 도입하면서 기술 점프까지 노린다.

송재혁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장은 최근 뉴스룸 기고를 통해 이미 200단 이상 8세대 V낸드를 개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전한 기술 초격차를 강조한 것.

다만 국내 반도체 업계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몇 단계를 앞서서 초격차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인다. 미세 공정 난이도가 크게 높아진 데다가, 경쟁 업체가 정부 지원을 업고 빠르게 기술력을 높이는 현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밑에서는 중국이 메모리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중국 YMTC의 낸드 플래시 점유율은 올해 3.8%에서 내년 6.7%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최근 128단 낸드를 양산하는데 성공하면서 현지 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상황, 현지 매체는 YMC와 CXTC 등 중국 업체들이 내년 저가 메모리 시장 점유율을 29%까지 높일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내놨다.

국내 업체들은 내홍까지 겪었다. ‘성과급 논란’이 확대되면서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심화하고 있는 것. 특히 SK하이닉스는 D램 불량과 관련한 내부 정보 유출 및 무머 확산으로 영업 활동에 악재를 맞았고, 결국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보타지’ 시도도 있다고 알려졌다. /김재용 기자

진격의 삼성 파운드리... ‘8나노 RF 공정기술’ 개발

28·14나노 이어 8나노 인프라 구축
5G 이동통신용 RF 파운드리 확대
14나노 공정 대비 전력 효율 35% ↑

삼성전자가 8나노 RF칩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8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5G 이동통신용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RF칩은 모뎀칩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해 실제 사용

가능한 무선 주파수로 바꿔주거나, 반대로 모뎀칩으로 전송할 수도 있는 무선 주파수 송수신 반도체다.

주파수 대역 변경과 디지털-아날로그 신호 변환을 하는 로직 회로 영역과 아날로그 회로 영역으로 구성된다.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5억 개 이상의 모바일 RF 칩을 출하하며 시장 리더십을 유지해왔다. 2015년 28나노 12인

치 RF 공정 파운드리를 시작해 업계 최초 14나노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8나노 RF 파운드리는 14나노 공정 대비 칩 면적을 약 35% 줄일 수 있고, 전력 효율도 35% 가량 향상시켰다. 멀티 채널, 멀티 안테나를 지원하는 5G 통신용 RF 칩을 원칩 솔루션으로 제공해 서브 6GHz부터 밀리미터파(mmWave)까지 5G 통신 반도체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공정 미세화는 로직 영역 성능을 높이는 대신 아날로그 영역에서 저항 증가에 따른 성능 저하와 소비 전력 증가 등이 발생한다. 이에 삼성전자는 RF 전용 반도체 소자 ‘RFeFET(RF extremeFET)’을 개발해 8나노 RF 공정에 적용했다.

특히 RFeFET의 전자가 흐르는 통로인 채널(Channel) 주변부에 특정 소재를 적용하고,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전자 이동 특성을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성능을 크게 향상하고 트랜지스터 수를 줄여 소비전력 및 면적 감소 효과를 이뤄냈다.

/김재용 기자 juk@